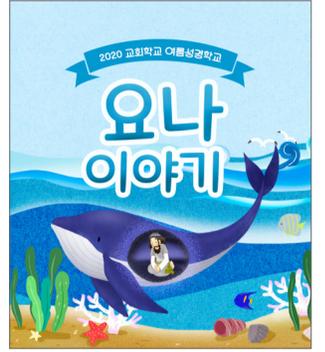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절박함 속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40일간 기도로 품다

호렘산 기도회 7월 10일 성만찬으로 종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 광림의 성도들

제32회 호렘산 기도회가 40일간의 장정을 마쳤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긴 기도와 결단으로 시작된 호렘산 기도회는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며 큰 은혜 가운데 7월 10일(금) 성만찬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 성도들
6월 1일 ~ 7월 10일 까지 매일 새벽 4시45분에 "이 땅 고쳐주소서"(대하 7:14)를 주제로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에서 40일간 진행된 이번 호렘산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보다도 광림의 성도들을 호렘산으로 부르시는 때였다. 호렘의 성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불안과 염려 대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한 성도들은 '코로나19로 고통중에 있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들을 위해, 광림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 직장과 사업'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호렘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두려워 말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구하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매일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주기도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를 전하며 "기도 할 길을 주셨고, 기도 하라 말씀 하였고,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온전하게 드러지는 기도다. 기도의 마무리는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참 진리되신 예수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을 살라"고 전했다.

믿음의 공동체들 합심해서 기도해
교회학교에서도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렘산 기도회>로 거룩한 습관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자녀들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체험했다. 청년부에서는 함께 기도하며 친교와 'LFC 온타임 밴드'를 통해 호렘산 기도회 기도응답 간증을 댓글로 나누었다. 본당 계단 벽면에는 성도들의 기도응답 간증문을 부착해 은혜를 나누고, 청장년부에서는 7월 4일 (토) 본당 로비에서 <소망 사진관>을 열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기억 될 수 있도록 가족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호렘산 기도회를 위해 광림교회는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교인카드 등록, 마스크 착용, 손 소독과 열 체크, 기도회 장소 분산으로 예방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마지막 날 성찬식에서도 개인별 성찬세트로 성만찬을 진행하며

위생에 최선을 다했다. 40일간 진행된 호렘산 기도회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net)와 유튜브(광림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전하며 현장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다
호렘산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김정석 담임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님께 드리는 목회서신>을 통해 "예배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다"라며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경건하고 안전하게 드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이상의 기자 shlh616@naver.com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본문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룻기’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떠났지만, 곧 불행이 닥쳐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고,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반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시어머니의 권고에 두 며느리는 각자 다른 결단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결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순간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어떠한 보장도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굳은 결심으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물질적인 풍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했기에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독립·자주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에 잘 적응하며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모압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요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올 작정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룻이 나오미를 ‘붙좃았더라’(14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지적인 혹은 전인적인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여 따른 것은 인간적인 도리나 윤리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여



룻기 1장 11~18절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이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단들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좃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건을 보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6절)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의지적이고 전인적인 결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떨치던 소망 없던 이방여인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존귀한 자리로 세워졌던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자기 부정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결단은 자기를 부정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서 오

르바처럼 새로운 인생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부와 이방 여인의 신세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분명 굶지 않은 시선,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양식, 익숙하고 즐거웠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한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좇아 유대 땅으로 온 룻은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러한 선택에 복을 더하십니다. 만약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13-14).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과 문은 좁습니

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부정’을 통해 이 진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셋째,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땅은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면서 얻어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땅’입니다. 이 곳을 버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오랜 시간동안 눌러앉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혔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 소중한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지켰어야만 하는 ‘믿음의 자리’, 이제야 그 자리를 떠난 것이 후회로 밀려왔고, 진정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가나안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을 젓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젓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곳은 황폐한 땅에 불과합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모압 땅에서 겪은 인생의 흉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룻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인생이었지만,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 메시아의 가문을 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주시길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달라진 성찬식 풍경,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호렘산 성찬식, 7월 10일(금) 새벽 4시45분 본당 대예배실과 부속실, 지성전에서 진행



2020년 7월 10일 새벽, 제32회 호렘산 기도회의 40일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성찬식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그간 광림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빵을 떼어 포도주에 찍어먹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찬을 분급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개인별 성찬세트를 활용하여 성찬식을 진행

하였다. 개인별 성찬세트 2,500개를 미리 준비하여 목회자들이 예배참석자들에게 본당과 벨엘성전, 교육관2층 출입구에서 나누어 주었다. 성찬세트는 작은 용기 안에 포도주와 전병을 넣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시행하는 성찬 분급의 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에서 타인과의 접

촉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광림의 성도들은 지난 40일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호렘산 기도회에 참석하여 세계열방,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광림교회, 가정과 개인, 직장 사업이라는 공동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달라진 모습이지만 조용한 침묵 속에서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은혜를 마음속에 새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광림교회는 거룩하고 바른 방법으로 모범적인 성찬예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백명순 기자 bms00n@naver.com

포토 뉴스



제32회 호렘산기도회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호렘산기도회가 은혜롭게 종료되었다



호렘산 기도회 성만찬
7월 10일 호렘산 기도회에서는 개인별 성찬세트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교회학교 안수기도회
교회학교에서는 7월 4일 호렘산 기도회 후 안수기도회를 가졌다



소망사진관
청장년부터는 소망사진관을 열어 성도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장로회, 40일간 수고한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광림교회 장로회(회장: 장세근장로)는 7월 10일(금) 오전 6시 30분 사회봉사관 B홀에서 시무장로 40여 명이 부부동반으로 모여 지난 40일간 영적인 힘이 넘치는 말씀으로 제32회 호렘산 기도회를 은혜롭게 인도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전 성도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장로들

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빌레몬서1:1~4)를 통해서 "사도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가지의 감사할 이유에 관해 이야기한 것처럼 광림의 장로들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존중하는 장로들이 되어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느껴지게 하는 믿

음의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권면하였다.

또한 "호렘산 기도회를 하는 지난 40일간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도회가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이번 기도회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주의 기도를 10번에 걸쳐 준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 위원장)

온라인에서도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가능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예배와 헌금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광림교회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든 성도들과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32회 호렘산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복음에 목마른 영혼에게 은혜의 생수를 함께 나누고 주일예배와 온타입

묵상, 속회 지도자 교육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질병이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직접 나와 헌금할 수 없는 성도들의 요청으로 온라인 계좌를 통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성도는 "예전에 어머니께서는 헌금으로 가장 깨끗한 돈을 준비하셨고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펴가며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사정상 온라인으로 호렘산 기도회에 참석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는 교구와 성명, 헌금

종류 순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면 1교구 김광림 성도가 계좌이체로 십일조를 드릴 때 '1김광림십일조'라고 적어 보내면 된다.

▶**헌금계좌 입금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803-992104
예금주: 광림교회

▶**해외에서 외화로 헌금할 때**
입금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081-500-915150
예금주: 광림교회
문의: 02-2056-5715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담임목사 동정



6/1~7/10 제32회 호렘산기도회
7/10 제32회 호렘산기도회 성찬식
7/12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3)

저는 불교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사랑하는 아내 차선화 권사와의 결혼승낙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혼 후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차 권사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주일예배, 속회, 선교회에도 열심히 참석하며 집사, 권사의 직분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주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은혜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983년에 시작한 트리니티 성경공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1989년 제1회 호렙산 기도회부터 호렙산의 제단을 지극껏 쌓아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제 영혼을 소생시켜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2018년 야외에서 운동 중 심정지로 사망 직전에 이르는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은 고작 0.03%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떠밀 듯 119 소방 응급대원을 쓰러진 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게다가 119 소방 구급차가 두 곳 모두 출동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쓰러진 곳 부근 출동이 취소된 구급차 2대가 동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정지가 왔고 바로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감사, 감사, 감사일뿐입니다.

제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합심하여 뜨겁게 중보기도해 주신 광림의 교우들,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애써주신 한양대 병원 의사인 김희진 권사님, 새벽까지 눈물과 기도로 함께해주신 믿음의 벗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사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임시호 권사(남선교회총연합회)

生生 생생 속회 (49회)

<9선교구 25, 26, 27교구>



찬양의 소리가 하늘공원에 가득하다. 지난 6월 27일(토) 오전 6시, 호렙산 기도회를 마친 9선교구 25,26,27교구 성도들은 사회봉사관 9층 하늘공원에서 연합속회로 함께했다. 간간이 내리는 가는 빗방울 속에 110여 명의 성도들은 공원벤치에 자유롭게 앉아 예배드리며 2020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호렙산 기도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황영재 목사는 ‘열심히 유별난 자’(왕상 19:7~10)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하고 유별난 열심을 소유했다고 고백한 엘리야처럼 우리 광림교회는 어려운 시국, 호렙산 기도회로 속회와

유별난 열심으로 기록한 사명 감당하는 9선교구

선교회로 모이기를 권면하며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을 다하고 있다. 9선교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자”고 했다. 사역 안에서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믿음의 동역자, 열심이 유별난 분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기억해야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의 종식과 이로 인해 중단된 사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장재관 권사는 “코로나19로 예배나 기도회 등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9선교구 연합속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오랜만에 뜨거운 기도회의 열기를 느

낄 수 있었으며 더불어 여러 교우들과 인사도 나누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도 뵈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각 교구 경조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지갑을 선물했다. 특별히 26교구는 어느 권사의 헌신이 있었다고 한다.

또 27교구에 조성희 전도사가 새로 부임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긴 공석에도 교구행사와 경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애써주신 27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선아 기자 andy8090@naver.com

코로나19를 통해 깨닫는 예배의 귀중함 <일본 야마가타 광림교회>



야마가타는 일본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주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2층 건물로 이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마가타 광림교회에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계속되면서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고, 예배에 잘 참석하던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예배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야마가타 광림교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 하나, 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보니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적어지고, 유대감을 느낄

수 없어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고백과 헌신, 봉사, 교제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아쉬움이 느껴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4월 초에 3명이 예배 드리던 교회가 5월 초에는 13명으로, 5월 말이 되어서는 20여 명이 넘게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야마가타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크게 세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다보니, 여러가지 방해 요소들로 인해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은혜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헌신, 봉사,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생동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믿음이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믿음이 흔들렸을 때, 방역수칙을 지키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야마가타 광림교회는 창립한 지 어느덧 6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야마가타 광림교회에 놀랍게 역사해주셨으며, 코로나19라는 위기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며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베풀어주신 은혜로 올해 초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던 교회건물을 본당의 지원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정식으로 인가받기 위한 종교법인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당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담임목사님과 감독님,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야마가타 광림교회가 되길 함께 중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중 선교사(일본 야마가타 광림교회)

제32회 호렙산 기도회

호렙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태 신앙으로 평생 동안 광림교회를 다녔지만, 늘 아침잠이 많던 저에게 원주를 결단하고 호렙산 기도회에 나온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년간 일해 온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자 다시 취직을 준비하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을 놓고 기도했지만, 세상적인 이유로 대기업을 꿈꾸던 마음이 한구석에 늘 남아있었습니다. 취직을 놓고 기도하던 중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주에 원하던 기업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무기한 연장 제안을 받았지만, 회사를 다녀보면서 대기업을 향한 기대감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의미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며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의 짧은 경력으로 인해 작지만 저와 꼭 맞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마치 불가능할 것만 같던, 저의 결코 작

지 않은 바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곳은 없었지만 제가 오랜 시간 쌓아온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며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제게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게 중보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의 첫 열심을 드린 호렙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의 자리도 겸손함으로 사모하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윤고나 성도(청년부)

은혜의 자리 주인공이 되는 길

매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이번에도 호렙산 기도회 40일 여정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새벽기도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올해까지 32년 동안 광림교회 성도들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던 추억이 묻어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무한한 사랑이 떠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중보하는 동역자들의 정성을 다해 쓴 기도제목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호렙산 40일 여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하고 뒤돌아서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호렙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올려진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보라 성도(청년부)

친구들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2013년 12월 저는 광림교회에 왔습니다. 올해가 7번째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감사하게도 2014년부터 매년 호렙산 기도회를 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의 십일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40일 만큼은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매년 호렙산 기도회에 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앞서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재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생활을 잠시 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패턴을 호렙산에 맞추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처음 일주일엔 피곤했지만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체력도 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광림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누군가 물어보지 않는 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고, 설득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도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위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나아가니 막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호렙산 기도회를 앞두고서

는 친구들에게 저녁 약속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양해를 구하면서 기도 제목을 꼭 물어봅니다. “내가 광림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호렙산 기도회라고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예배를 드려. 내가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회에 가는데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려고 해요.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줍니다.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며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에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이야기도 나누어줍니다. 한때 저는 제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그저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로 설명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다희 성도(청년부)

One 'yes' can change it all

2010년, ‘내가 너를 만나리라- Always be here!’ 하나님을 처음 ‘만남’ 자리인 호렙산에 오른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며 호렙산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저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연신내 집에서 내곡동에 있는 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5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호렙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올해 호렙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유튜브 라이브로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오며 듣고, 교회에 도착해서는 기도만 하고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나왔는데,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해도 되니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등교 개학을 앞둔 6월 첫 주 주일, 청년부 목요 웨키나 자리에서 김주송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주어진 자리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에스더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 속회의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이들에게 개학 날 장미를 선물로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가 양재 꽃 시장에서 가깝기는 하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포장해서 나누어 주려면 다음 날 호렙산을 반드시 교회 버스를 타고 미리 와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첫 날은 거의 두 시간 정도를 자고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꽃 시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꽃말을 가진 ‘파란 장미’를 샀습니다. 아이들과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6월에라도 만나게

된 것이 ‘기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 이후로 매일 새벽 두시 반에 일어나 호렙산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초임 때는 가르쳤던 아이들이 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 나아가며 저의 생각이 바뀐 부분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만이 남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복음을 접했을 때 그 ‘사랑’이 낯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호렙산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저에게는 매 순간 교사로서 나아가는 걸음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음 주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육신의 평안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해 보시길 자신 있게 권면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인혜 성도(청년부)

제32회 호렙산 기도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동트기 전 호렙산에 오르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담임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절실히 와 닿았는지 이렇게 간증문을 올립니다.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둘째 아들 홍준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그 아이에게 골육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는 새롭게 자영업업을 시작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소아암 환자라니....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홍준이의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사람에게 전화했더니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홍준이가 골육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냥 멍하니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힘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올해 3월 6일, 갑자기 패혈증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하던 때라 홍준이도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와야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홍준이에게 더 긴급한 패혈증쇼크가 왔습니다.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얼굴조차 모르는 한 의사가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아이를 어린이병동

중환자실에 입원시키세요"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홍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인공심장(에크모)과 인공폐를 연결하는 수술을 했고 앞으로 2~3일이 고비라는 말만 듣고 집에 와야 했습니다.

제가 홍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 안하니?" 사실 홍준이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무작정 교회로 나왔습니다. '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벤엘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홍준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매일 제 힘을 보태 하나님께서 홍준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홍준이는 무척이나 힘든 항암치료를 받기를 싫어했고 병원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심하게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홍준이는 입원하기 싫다고 떼를 썼고 속이 상했던 집사람도 그런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입원 수속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준이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어? 우리 하나님 100%로 믿자. 70%, 80%로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을 거면 100%로 믿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준이는 오히려 씩씩하게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홍준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느 날 식당영업을 끝난 후 홍준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가 금요일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홍준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보다 홍준이를 더 사랑하고 너보다 더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줄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세세히 들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준이와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보

다 홍준이를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홍준이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환자실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가락이 괴사되어 처음에는 발목까지 매우 안 좋아질 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나, 지금은 발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해 움직이지 않던 홍준이의 발가락이 움직이며 새살이 돌아 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교우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매주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놀라고 신기해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하며 참 소망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태중 집사 (12교구)



은혜가 풍성한 나의 하나님!

호렙산기도회를 유달리 기다리는 올 초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나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다쿵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세금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영동고등학교로 배정되었다는 발표가 났으니 아들 때문이라도 논현동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저곳 전세를 구하려고 집을 찾아보았지만 이 금액에 맞는 집은 없었습니다. 날씨가 다가오자, 마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십견 때문에 온몸이 통증으로 아프고 마음도 지쳐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에 맞는 집이 나왔으며 빨리 나오라는 말에 무조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시138:3)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고 그것도 교회가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늘 세 식구가 비좁은 방에서 함께 쓰곤 했는데 아들방과 친정어머니방까지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때마침 얼마 있으면 호렙산 기도회가 있

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설레이며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픈 몸을 이끌고 호렙산 기도회를 사모하며 올라갔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가정은 점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어갔습니다.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며 교회도 잘 다니고, 친정엄마는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올해 90세된 어머니는 호렙산 기도회의 시간에 맞춰 같은 시간에 집에서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더 없이 설레는 호렙산 기도회가 20일이 지날 즈음 저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십견에 시달리던 어깨가 깨끗이 치유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전혀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오로지 주님께 "감사,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깨끗이 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져 주심에 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호렙산기도회가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며 우리의 아픔을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성숙 집사 (24교구)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호렙산 기도회는 저에게 있어서 귀한 말씀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자, 다시 한번 나의 기도생활에 불씨를 붙여넣어 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신 친정 엄마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기도회 하면 저는 늘 목숨을 건 열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려 했던 친정 엄마와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호렙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로 호렙산 40일 완주 6년 차를 앞두고 있는 아들 준혁이는 어릴 적에는 아빠 품에 안겨서 눈도 못 뜬 채로 따라 나왔었는데 언제부터가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연말에 교회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호렙산 기도회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체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덮친 올해에 아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교회에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호렙산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리고 올해 호렙산 기도회부터는 본인이 알람을 맞추고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호렙산 기도회를 보내며 아이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받는 은혜가 큼니다.

또한 호렙산에 오르며 받는 가장 귀하고 큰 은혜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함께 연합

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도의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정은 호렙산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호렙산 기도제목 중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기도제목의 응답입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나에게 있어서 귀한 은혜의 추억이자 거룩한 습관이 되었듯이 아들 준혁이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어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무사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고 귀한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민정 집사 (9교구)

이 땅 고쳐주소서!

가자!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정상으로

최근 등산인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중력을 거슬러 정해진 길로 묵묵히 오랜 시간 고되게 올라가야 한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을 산으로 불러 모으는 등산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고된 발걸음 끝에 정상을 딛고 섰을 때, 올라온 만큼 높아진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때문일 것이다. 당장의 한 걸음은 고되지만 오르다보면 분명히 정상에 마주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산으로 향한다.

매년 6월, 나는 40일의 긴 등산의 여정을 떠난다. 내가 오르는 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산, 호렙산이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때로는 잠의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생계의 문제에 부딪혀 정전으로 가는 발걸음을 붙잡히기 십상이다. 이토록 나약한 육체를 이기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고된 여정과도 같다. 그러나 지금의 이 발걸음이 고되고 묵묵히 올라가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마주할 정상은 그만큼 더 높고 세상 위에 우뚝 솟을 것을 믿듯이 40일 동안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

는 이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 끝에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기도가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가 호렙산에서 울부짖었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꾸준히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에 예비하신 응답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뿐이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크고 높을수록 더욱 더 높은 기도의 산을 올라야 할 것이고 내가 바라는 응답이 절박하고 급할수록 더욱 더 전심으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작정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호렙산에 올라 세상의 신을 벗고 주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도 못 할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정상으로!



이한진 집사 (20교구)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얼마 전 간암이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오후 4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준비 하겠습니까?” 하면서 양다리 팔을 모두 묶어 놓았습니다. 그때 잠시 기도생각이 나서 “하나님! 소인이 간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하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난 후 너무 아파 말도 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만남도 코로나19의 여파로 30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너무나 아픈 가운데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시골동네, 예전 5,60년대의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희미한 십자가가 힘없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나이는 30~40대로 허름한 시골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하고 물으니 약 300평 정도라고 했습니다. 교회 간판도 달려있고 창고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새로 고쳐 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도 크게 달고요”하니 그 분이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하

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곧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헌집을 보기 좋게 고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나중에 크고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골동네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좋다.”하고 웃으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마취도 완전히 가셨는데 이상하게도 제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누워서 자전거 타기도 해보고 태권도도 하였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수술한 것이 꿈인가 생각이 들어 배를 만져보았는데 수술자국이 만져졌습니다. 이 작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번 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호렙산기도회 기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종호 집사(광림교회)

하나님의 이끄심

저희는 2018년 9월에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가 있어 이사를 하고도 의정부에서 성동구 성수동까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교회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분이 저희 부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지금 광림북교회 담당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제 아내는 억지로 끌려 다니듯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기적입니다. 억지로 가든 기분 좋게 가든 수년 동안 다니지 않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다는 것은 제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정을 위해 자연스럽게 광림북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딸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평생소원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건축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고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1차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는 첫 시기인 만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가 있기에 기도하며 더 준비하여 반드시 합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아내가 호렙산 기도

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보이는 어떤 분(?)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다니는 것이겠지만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중간에 늦잠을 자서 완주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나가는 그 뒷모습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느 순간 가정에 찬양이 흐르고 부부싸움의 횃수도 잦아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딸 아이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친구들에게도 광림북교회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갑작스럽게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는데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일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해보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도전받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축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토록 교회가 행사도 많고 힘든가! 그냥 코로나일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텐데 생각했는데 가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이상이었습니다. 괜히 광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저희 가정을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성안 성도(광림북교회)

숲속에 타는 불꽃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40세에 강남 대치동에 이사 와서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한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의 친정어머니께서는 늘 자식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드렸으며 저는 어렸을때부터 어머니 손 잡고 다닌 새벽기도가 몸에 익숙해졌으며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회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더욱 호렙산 기도회에 담임목사님의 설교에 폭발적이고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광림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이 이제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일본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둘째 자녀도 담임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하여 미국의 한 대학 비만치료를 연구하다 이제는 한국에 귀국하여 광림교회 창정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의 꿈을 이루어 의사로 레지던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호렙산 기도회는 특별히 잠시 남편 안 권사의 생신을 맞이하여 미국에서 각자 신실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자녀들도 모두 한자리 모여 기도회에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

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놀랄만한 기적의 사건은 없었어도 큰 고난의 풍파없이 지금까지 온 가족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고향교회에 아버지 이름으로 국채원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던 것같이 이제는 광림교회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가끔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할 때마다 ‘구름때 처럼 모여든 성도들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오늘도 32회 호렙산 기도회를 맞이하여 “부름받아 나선 이몸...” 숲속에 타는 불꽃을 향해 달려갑니다.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광림교회 성전은 기쁨이 샘솟는 곳이고,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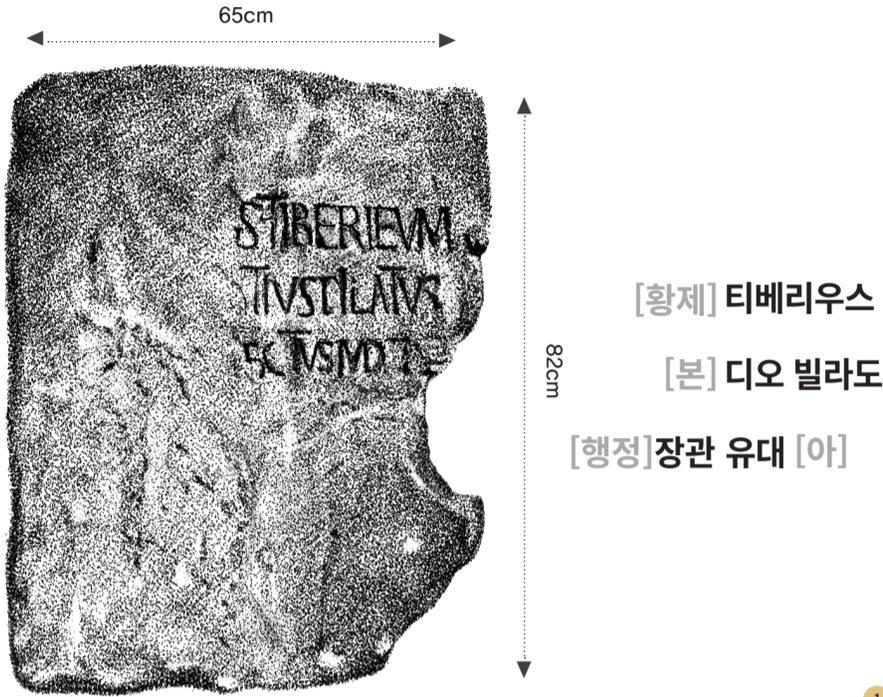


국은숙 권사 (17교구)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4 빌라도의 석비(Pilate Stone)



[...] S TIBERIEVM

[PON] TIUS PILATUS

[PRAEF] ECRUS IUDA[EA]

[황제] 티베리우스

[본] 디오 빌라도

[행정] 장관 유대 [아]

Pilate Stone ▶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us)는 로마의 속주의 하나인 유대아(Judea) 지방의 다섯번째 행정장관(Praefectus Iudaea)이었습니다(기원후 26년-36/37년). 빌라도는 유대아 뿐만이 아니라, 유대아 남쪽의 이두메아(Idumaea) 지역과 유대아의 북쪽인 사마리아까지 모두를 관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들을 통틀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가 두 개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유대아 사람들의 수도이자 이두메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이르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산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지만,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 거주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예루살렘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중심지는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Caesarea Maritima)였습니다. 이 곳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거주지이자 동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기록에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위대(Praetorian Guard)의 고위 장교였던 세야누스(Sejanus)의 천거로 유대아의 행정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야누스가 31CE에 몰락하고 처형당하면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역사가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더 열정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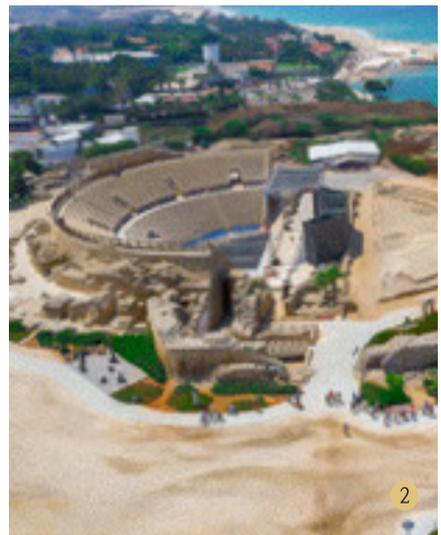
닌지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연대기(Annals 15.44)에서 그리스도(Christus)가 티베리아스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는 짧막한 기사를 소개합니다만, 이런 기록만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명쾌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빌라도와 연관된 사건은

- (1)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구실 삼아 재판을 걸었다(마 27:1~2,11; 막 15:1~5; 눅 23:1~2; 요 18:28,33~37)
- (2) 예수님이 죄없음을 알게 되어서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마 27:18; 막 15:10,14; 눅 23:13-16; 요 18:38; 19:4)
- (3)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 누굴 선택할지 물었다(마 27:15~26; 막 15:6~15; 눅 23:18~25; 요 18:39~40)
- (4) 빌라도가 손을 씻고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선언했다(마 27:24)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보다 빌라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의 다른 행적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나?”(요 18:38)며 묻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마치 왕처럼 자색 옷을 입고 유대 사람들 사이로 끌려나올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요 19:5)라며 유대인들의 기소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

의 기록은 빌라도가 그리 특별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문제였고, 예수님을 죽게한 책임을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모두 돌리려는 듯한 뉘앙스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같은 시대 사람인 필로(Philo 10BCE-45CE/50CE?)가 평가하는 빌라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필로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560km 떨어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헬라 문화와 학문에 능통하고 유대교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헬라식으로 증언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필로의 동생 리시마쿠스(Alexander Lysimachus)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니, 필로의 집안이 사실상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을 이끄는 정신적-사회적 리더였다고 말



할 만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로마 제국과 필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로의 동생 리시마쿠스는 티베리우스 황제(14~37CE 재위)의 어머니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었고, 리시마쿠스의 아들인 알렉산더(Tiberius Alexander)는 티투스(Titus)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할 때(70CE) 예루살렘 공격에 함께 참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필로는 로마와 유대인의 경계선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필로는 조금더 객관적으로 로마 사람 빌라도를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필로의 글에서는 빌라도를 매우 박하게 평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와 유대인의 대표로 칼리굴라 황제(37-41CE 재위)에게로 간 필로는 유대아의 왕 아그립바 왕의 편지를 대신 전하노라며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로 빌라도를 묘사합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이 완고합니다” “그는 고집이 션니다” “그는 잔인합니다” “그는 심술궂습니다” “그는 성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관으로서의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런 명사들로 정의합니다. “뇌물을 즐김”, “폭력적임”, “강탈”, “협박”, “독설을 내뿜음”, “재판을 받지 않은 죄수들을 처형”, “포악한 야만성”

빌라도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만, 가이사랴에 거주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역사적인 기록물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도 발굴이 되었거든요. 1961년 가이사랴를 발굴하던 이탈리아 고고학자 프로바(Antonio Frova)가 극장을 발굴하던 중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확인해보니,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새겨 놓은 석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가 무너진 뒤 기원후 4세기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면서 극장의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으로 재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진설명

- 1 빌라도의 석비(Pilate Stone)
- 2 가이사랴빌립보(Caesarea Maritima)의 원형 극장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